

## 아프리카의 실상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 아프리카 진출 동향

김일수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그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아 소원한 대륙이고 우리와 아프리카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인구 구조, 자원의 부존 등에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국제적 역할이 증대할 아프리카의 실상을 연구하고 인식의 왜곡을 바로잡으며, 향후 아프리카와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아프리카의 전통적 파트너인 유럽과 냉전 시대 아프리카 지원을 주도했던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낮아짐으로써 생긴 전략적 공백을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제국들이 아프리카와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정치적 교류를 강화하며 채워가는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 김일수는 외교부에서 38년간 주 미국,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 대사관 등에서 근무했다. 주 카자흐스탄, 주 이스라엘 대사를 지내고 외교부 은퇴 후 아프리카 미래전략 센터 대표로 활동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King's College London에서 전쟁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북한 대학원 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탈무드 창조 경제' 등이 있다.

**Date & Time: May 21 (Tues.) 2019, 12:00-13:00**

**Place: Asia Square (3F), SNUAC (Bldg#101)**